

충남도 학생 복지정책 확대 방안

2014. 3. 28 /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김용현

① 국내사례

1.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사업목적

- 대학생들의 가장 큰 부담인 등록금 문제와 관련하여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함으로써 대학생 학업전념 환경을 조성하고 학부모 가계부담을 경감

☐ 지원대상

- 저소득층 지원대상
 - 직계 존속이 1년 이상 경기도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 2010년 2학년~2012년 2학기 일반상환 학자금을 대출한 소득 4~7분위 학생으로 경기도 저소득층 이자 지원을 받아온 학생
- 다자녀 지원대상
 - 본인 또는 직계 존속이 대출일 현재 경기도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 2014년 1학기에 일반상환·취업후상환 학자금을 대출한 학생으로 3명 이상 다자녀 가구의 둘째 이후 학생

☐ 2014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14. 3.17~4.17
- 신청방법 :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
- 신청대상 : 경기도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학생
- 지원금액 : 「경기도 학자금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6월, 12월)
※ 저소득층 기 지원 대상자의 이자 지원율은 학기별로 정해져 있음
- 지원방법 : 개인별 대출금 상환계좌 입금
- 사업일정

| 구 분 | 1학기 | 2학기 |
|-------------------------------|-----------------|----------------|
| 대학생 학자금 대출 신청 기간(한국장학재단) | 1~3월 | 7~9월 |
|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접수 | 3.17.~ 4.17. | 9월중순~ 10월중순 |
| 지원 대상자 명단 조회 및 확정 | 5월 | 11월 |
| 경기도 학자금 이자지원 심의위원회 개최 및 이자 입금 | 6월 | 12월 |

2. 경기도의 어려운 청소년 생활장학금 지원 사업

☐ 사업목적

- 경기도는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총 245억6400만 원을 복권기금으로 지원받아 도내 저소득 청소년에게 지원

☐ 신청대상 및 자격

- 중·고등학생,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실질자 가정자녀, 근로청소년, 다문화가정·북한이탈주민 청소년 등
※ 청소년장학금(학업 및 생활장학금) 경험이 없는 자 우선 지원

☐ 신청(접수)기한

- 2014.3.10(월)~4.4(금) 18:00까지

☐ 지원금액

- 연간 중학생 600,000원, 고등학생 900,000원
- ※ 연간 지원금액을 상·하반기로 나눠 지급 : 4월, 9월중

☐ 제출서류

- 생활장학금지원신청서, 자기소개서, 학생생활기록부, 수상증빙자료, 건강보험료 자격득실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신청문의

- 주민등록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 담당부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시군 사회복지업무담당부서
 - 자활청소녀 : 시군 청소녀업무담당부서
- 근로청소녀는 해당 학교에 문의(학교장이 도에 추천)

3. 전북의 취약계층 청소년 교통카드 전달

☐ 사업배경

- RCY(청소년적십자) 창립 60주년을 맞아 2013년 5월4일 개최한 ‘제1회 아름다운 동행 희망풍차 걷기 캠페인’(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JB 전북은행, 티브로드에서 공동개최)을 통해 모아진 기금을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교통카드(1인당 10만원 상당)를 전달
 - 2013년 5월4일 캠페인 행사에서 조성된 2520만원으로 교통카드를 제작해 취약계층 청소년들에게 배포
 - 대상자 선정은 캠페인에 참여한 전북 도내 중·고등학교로부터 추천받은 192명과 전북은행으로부터 추천받은 취약계층 청소년 60명 등 총 252명에게 지원

4. 코레일 “내일로 여행”

☐ 사업배경

- 한국철도공사에서는 ‘내일로 티켓’ (만 25세 이하 대상의 7일간 무제한 기차 여행)을 통하여 전국을 여행하며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고 자기계발에 도움이 되는 상품을 운영중
- 대상 연령 : 사용 개시일을 기준 만 25세 이하
- 운영 기간 :
 - * 여름시즌 : 6월 1일~ 8월 31일
 - * 겨울시즌 : 12월 1일~ 2월 28일
- 승차권 발매기간 : 사용 개시일을 기준 7일 전부터(당일 구매도 가능)
 - ※ 사용시작일 기준 : 1일 2,000매 한정 판매
- 가격 : 56,500원
- 발매 장소 : 내일로 홈페이지 또는 승차권 발매 단말기가 설치된 철도역
- 탑승 가능한 열차 : 새마을호, 누리로, 무궁화호, 통근열차의 자유석과 입석

5. 청소년 카드

☐ 사업배경

- 청소년증은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에게 국간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 보조하는 고궁, 박물관 공원, 금융거래를 위한 실명확인 증표 활용, 공공시설 이용 등 청소년에게 무료 또는 할인할 경우 이용자가 청소년임을 확인하기 위해 제시하는 증서를 말함.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도 학생과 동등하게 할인 혜택을 받게 할 목적으로 도입됨

☐ 발급

- 문화관광부는 청소년 할인제도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지난 2003년 청소년복지지원법을 제정하여 2004년 2월 9일 공포하였고 (시행은 2005년 2월부터) 이에 앞서 청소년증의 조기 발급을 위해 ‘청소년증의 발급 등에 관한 규정’을 문화관광부 훈령으로 제정, 2003년 9월에 각 시·도에 시행함
 - 청소년증 대상 청소년은 2005년부터 13~18세에서 9~18세까지로 변경됨
 - 청소년증 발급을 원하는 청소년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관할 동사무소나 시·군·구청에 가서 소정의 신청서와 사진을 첨부해 신청하면 됨. 발급된 청소년증은 전국 어디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음

☐ 혜택

- 마을버스, 시내버스, 시외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할인을 받을 수 있음
- 영화관, 공연장, 콘서트홀, 박물관, 미술관, 놀이공원, 경기장 등등 문화, 체육시설에서 청소년 요금으로 받을 수 있음
- 은행에서 통장, 카드, 인터넷, 폰뱅킹 신청 등 금융거래를 위한 실명 확인표로 사용가능하고 도서관에서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음
- 구청/군청/시청 또는 주민센터(동사무소), 읍/면 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 초본 발급이 가능함
- 여성가족부 청소년증 사용 설명서에 따르면 일부 사기업에서 청소년증에 대한 특별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② 국외사례

1. 독일의 학생증사례

☐ 사업배경

- 교통비의 경우, 독일에서는 학생증이 교통카드이기도 함, 주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학생증만 있으면 주 내 모든 교통카드를 이용할 수 있음

- 학기당 지불하는 260유로(39만원)의 사회적 분담금안에 150유로 (약 23만원)의 교통비가 포함돼 있다. 대략 월4만원이면 교통비가 해결되는 셈
- 이 학생증만 가지고 있으면 고속열차(이체), 기차 1등석을 제외한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에 있는 모든 지하철과 기차·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게다가 학생증을 가지고 주말과 공휴일은 종일, 평일은 오후 7시 이후부터 일행 한 명을 동행할 수 있음. 학생 혜택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최소 2배 이상의 교통비가 듬
- 보험 시의 경우 경전철 또는 버스승차권은 2.5유로(3750원)로, 월 60유로(약 9만원)의 정기할인권을 구입해도 다닐 수 있는 지역은 제한적임. 따라서 월 4만원으로 주 전역을 다닐 수 있다는 것은 큰 혜택임. 그럼에도 자전거나 교통카드가 필요하지 않으면 사회적분담금에서 교통비를 제외하고 납부할 수 있음

○ 학생증을 통한 교재비 구입비용 절감

- 공부를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책은 물론 구입해야 함. 더욱이 독일은 한국보다 책값도 비싸다. 그렇지만 실제 교재비 지출은 한국보다 훨씬 적음. 이유는 학교도서관 체계적인 시스템 때문임
- 기본적으로 학교 도서관은 전공학과 관련 책을 충분히 준비함, 교재비는 체계적인 학교 도서관 시스템으로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음. 전공학과 책을 충분히 구비해 놓고 관련 책을 권수의 제한없이 대출할 수 있게하는 제도가 구축됨

○ 독일 학생들을 위한 무이자 대출 제도

- 독일대학생이라면 ‘바뢰크’로 불리는 학자금 대출제도(무이자 대출제도)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음
- 학생 1인당 월평균 약 450유로, 우리 돈으로 약 68만원 정도를 학업 기간 내 내 지원받을 수 있음
- 취업 이후에 갚아야 할 대출금이지만 정부지원으로 50%만 이자없이 원금만 갚으면 돼 대다수 학생이 이용하고 있음

2. 프랑스사례 : 에스칼(Esc@le)이라는 학생공간

- 파리근교 세브르(SEVRES)시는 시차원에서 학생들을 위해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스칼(Esc@le)이라는 학생공간을 마련하여 학생들의 편익을 도모하고 있음. 에스칼(Esc@le)에서 지역의 학생들을 위해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음
 - baby-sitting : 방과 후 아이를 돌보는 아르바이트를 16세 이상의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에게 주선했다
 - soutien scolaire : 중·고등학생들의 학업지원을 (우리로 치면 과외에 해당) 대학생들에게 알선 해주는 서비스
 - logement : SEVRES지역의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에게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서비스
 - Service aux particuliers : 대인서비스 : 이 서비스는 16세 이상의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에게 정원손질이나 브리콜라주 같은 대인서비스를 알선해 주는 서비스
- 이밖에도 에스칼(Esc@le)은 대학생연령으로 구성된 청소년교사를 두고 지역사회의 초·중·고·대학생을 상대로 학업지도 및 사이버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CROUS (대학서비스센터)

- CROUS는 대학생들을 위해 아르바이트나 주택 등의 정보를 알려주는 등의 학생복지기관임. 이 CROUS에서 운영하는 학생식당은 대부분의 메뉴가 3 유로 (약 5500원) 수준이며, 일부식당의 경우 야간과 주말, 방학기간에도 중에도 운영한다(일반인도 이용가능). 외식을 할 경우 비용이 많이 드는 프랑스를 감안할 때 저렴한 비용으로 학생들의 편익을 도모해주는 서비스임

③ 충남도의 적용방안 사례

1. 저소득층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충청남도지원방안검토(안)

⇒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벤치마킹하여 “충남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해 볼 수 있음

▶ 사업배경 :

충남소재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 충남도 차원에서 “대학생 대출이자 지원조례”를 제정해 학비를 거의 무이자로 빌려주고 취업한 다음 갚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사업의 골자임

▶ 사업시행에 앞서 조례제정 작업이 선행되어야 함, 조례제정을 통하여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은 경기도에 준하여 설정하거나 충남도 나름의 기준을 정할 수 있음

▶ 충남도 홈페이지를 통하여 대학생이 자유롭게 신청하도록하고 「충남도 학자금 이자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상자와 지원금액을 선정하도록 함

2. 어려운 청소년 생활장학금 지원

충청남도 지원방안 검토(안)

⇒ 이 지원사업도 경기도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임. 충남도역시 자치복권협의회의 협조하에 복권기금을 활용하여 어려운 청소년에게 생활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음

▶ 지원대상 : 중·고등학교학생으로 주민등록상 충남도 거주자

▶ 신청자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실직자 가정자녀, 자활청소년, 근로청소년, 다문화 가정·북한이탈주민 청소년 중 청소년장학금(학업 및 생활장학금) 경험이 없는 자 우선 지원

▶ 지원금액 : 지원액은 중학생과 고등학생 별로 차등지급하고 대상자와 지원액은 「충남도 청소년 생활장학금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함

- ▶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시·군에서 심사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최종 결정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함
- ▶ 이 지원사업역시 사업시행에 앞서 조례제정 작업이 선행되어야 함. 또한 ‘복권위원회’의 협조를 받아내는 것이 관건임

3. 독일의 학생증 사례의 벤치마킹

충청남도지원방안검토(안)

- ⇒ 이 지원사업은 독일대학생의 경우 학생증만으로 특정주내 KTX를 제외한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한 것에서 유래. 충남도 소재 대학에 다니는 대학생들에게 충남도가 예산을 부담해서라도 교통비를 절감해 주는 것이 골자임

제1안) 예를 들면, 공주에서 대학을 다니는 학생이 학생증만으로 충남도 전역의 버스·지하철·기차를 제한 없이 탈 수 있게 하도록 하는 것

제2안) 차선택으로 충남도 소재 대학에 다니는 대학생들이 충남도 전역에 대해서는 버스·지하철·기차 등 교통수단에 제한없이 환승할인이 되도록 함

- ▶ 이 지원사업은 대학생들로 하여금 학생복지의 진수를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나 예산소요가 문제임
- ▶ 학생복지 차원에서 충남도와 충남소재 대학간의 협약을 맺어 예산의 일부를 대학측이 충당할 수 있 방안을 강구해 볼 수 있음(독일처럼 대학의 등록금안에 이미 일정정도 교통비가 포함된 개념으로 인지함)
- ▶ 제1안은 물론 제2안인 환승할인도 이용자 입장에서는 편리한 제도있긴 하지만 결국 누군가는 부담을 해야 함. 환승할인손실비용보전금이 문제임
- ▶ 예산문제는 전북의 경우처럼 ‘걷기 캠페인’ 등 행사를 통해 모아진 기금으로 일정부분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 프랑스처럼 저소득계층의 대학생에게 교통비를 반액으로 해 주는 대중교통 유인정책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음
- ▶ 대학생 교통 할인 정책을 국고보조 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음
- ▶ 천안소재 대학의 경우 혜택으로 거주지가 충남도인 학생으로 한정하여 특전을 부여해야 함

4. 프랑스 학생공간인 에스칼(Esc@le)의 벤치마킹

충청남도지원방안검토(안)

- ⇒ 파리 근교의 세브르지역에서 운영중인 학생공간인 에스칼을 벤치마킹해서 천안이나 아산 같은 시에 설치하는 것도 검토해 볼 만함. 이 지원사업의 경우, 지역의 학생복지는 물론, 공공 일자리 창출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일조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음